

아동을 위한 영어 어휘 지도방법

Teaching and Learning Vocabulary for Children

홍 경 선

Kyoung-Sun Hong

목 차

- I. 머리말
- II. 영어 어휘력이란 무엇인가?
 1. 어휘의 카운트 단위와 사용 빈도
 2. 어휘의 특성 및 구성요인
- III. 아동을 위한 영어 어휘 학습전략
 1. 초등영어과정의 기본어휘
 2. 어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려할 사항
 3. 교실수업에서의 어휘 지도방법
- IV. 맷음말
- * 참고문헌

I. 머리말

의사소통 교수법에서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이해할만한 영어입력을 제공해서 학습자가 영어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활동을 해나가도록 유도하라고 주장한다. 하

지만, Nation(2001)이 지적하듯이, 의미에 초점을 맞춘 활동이 이루어지려면 학습자가 제공된 영어입력 어휘의 95% 정도를 친숙하게 여길 때 가능하다고 한다. 즉, 학습자의 어휘능력이 약하면 의사소통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Widdowson(1978)도 정확한 문법으로 부정확한 어휘를 사용한 경우보다 부정확한 문법이지만 정확한 어휘를 사용한 경우 의사소통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영어교육에서, 특히 초보 단계일수록 어휘능력 신장이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Nation과 Waring(1997)에 따르면¹⁾ 영어는 54,000 단어가족(예. walk, walking, walked, a walk 등이 한 단어가족으로 취급된다)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어 원어민들의 경우 대학에 입학할 무렵 20,000 개 정도를 알고 있다. 원어민의 경우 5세가 되면 4,000~5,000개 단어가족을 알고 있고 그 후 1년마다 1,000개 정도를 추가한다고 한다. 따라서 외국어 학습자의 경우 처음부터 어휘력에서 원어민과 큰 격차가 존재하고 1년에 습득하는 어휘수도 외국어 학습자의 경우 500단어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원어민과 외국어 학습자의 경우 어휘력 차이가 점점 커지게 된다. 하지만, 어휘의 사용 빈도 등을 고려해보면 보통 텍스트의 80% 정도는 자주 사용되는 2,000 단어 정도를 알면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Nation, 2001). 어휘지도는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다.

효과적인 어휘지도는 새로운 어휘를 제시하는 방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교사의 지도 방법에 따라 목표 어휘가 학습자의 장기기억에 성공적으로 보존시킬 수 있는 지도방법을 뜻한다. 교실에서 끊임없이 목표 어휘를 반복 재생하여 사용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사용을 통해 어휘를 기억하게 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하며, 듣기와 읽기 등의 이해활동에 머물지 말고 표현활동인 말하기와 쓰기를 통해 어휘기억이 강화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다른 학습과 마찬가지로 영어 학습도 학습자가 의미를 생각하며 “머리를 쓰는” 과정을 거치면서 기억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 Cameron(2001)에서 재인용

II. 영어 어휘력이란 무엇인가?

영어를 잘하려면 통상적으로 영어 어휘 실력이 있어야 하고 문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때 어휘 실력이 지칭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영어 원어민이 20,000단어를 알고 있다거나 1,000단어를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단어 수는 어떻게 카운트한 것인가?

1. 어휘의 카운트 단위와 사용 빈도

Nation(2001)에서 제시하듯이, 단어 수를 카운트하는 단위로 토큰(token/사용단어 running word), 유형(type), 레마(lemma), 단어 가족(word family)등의 개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It is not easy to pronounce it correctly'라는 문장에서 단어가 몇 개 사용되었느냐는 질문에 8개(it, is, not, easy, to, pronounce, it, correctly)라고 대답했다면 토큰을 카운트한 것이고 단어가 7개(it, is, not, easy, to, pronounce, correctly)라고 대답했다면 유형을 카운트한 것이다. 레마는 어근(head word)과 어근의 굴절형 또는 축약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 굴절어미로는 복수형, 3인칭 단수현재 시제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 -ing, 비교급, 최상급, 소유격 형태 등이 있다. 동사인 walk와 명사로서의 walk는 다른 레마로 취급하며, favor, favour같이 의미는 같고 철자만 다른 단어는 같은 레마로 다룬다. 레마라는 단위 배후에는 학습부담이라는 개념이 자리잡고 있어서, walk를 알면 부담없이 walked, walking등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레마로 취급한다. 레마라는 개념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보면 레마+그 파생어(예. -ly, -ness, un-)까지 포함시킨 단어가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500개의 사용단어가 등장한 레이디버드 판 「세 마리 새끼 돼지」 이야기에는 124개 단어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사용빈도를 보면 the, little, pig, house, a, and, said, he, I, me가 빈도가 높은 상위 10개 단어로 나타났고 이 자료에서도 내용어(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는 4개, 기능어(대명사, 조동사, 전치사, 접속사 등)가 6개를 차지하고 있다. 어휘 빈도를 논의할 때 클래식 리스트가 된 West(1953)의 A General Service List of English Words에는 2,000개 단어가족이 수록되어 있다. 그중 165개 단어가족이 a, some, two, because, to같은 기능어이고 나머지는 내용어이다. 그리고 80%를 차지하는 이 2,000개 어휘 가운데 상위 1,000 개 단어가 77%를 차지하므로 사용빈도가

높은 어휘를 고를 때 빈도(frequency)와 분포범위(range)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1980년대 Sinclair가 주도한 COBUILD 프로젝트²⁾는 실제 언어 사용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2000만 어휘를 보유한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광범위한 컴퓨터 분석 자료를 지칭한다. 이 분석 자료로부터 목표 단어와 연어관계(collocation)에 있는 청크(chunk)라는 단위가 부각되고 이 연어관계를 영어 학습자에게 학습시킬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어휘에서 다를 영역이 확장되었다.(Coady & Huckin, 1997)

2. 어휘의 특성 및 구성 요인

단어를 안다는 것은 그 단어의 의미(meaning) 뿐만 아니라, 형태(form)와 쓰임(use)을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단어의 형태는 단어의 발음, 철자, 어미글절에 따른 이형태 등 변화된 형태를 포함한다. 의미는 개념으로 지시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개념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개념, 함축적 의미, 스키마 등을 포함한다. 쓰임은 언어 관계에 있는 다른 단어 등과의 표현 패턴 및 특별한 언어 사용 등을 포함한다.

McCarthy(1990)는 어휘 지식으로 단어형성 (word-formation) 원리가 되는 독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기본 어근, 접두사와 접미사 등을 활용한 파생어, 합성어, to kick the bucket 과 같은 관용적 표현뿐만 아니라 2개 단어의 표현형 (to and fro)이나 3개 단어의 표현형(morning, noon and night) 같은 여러 단어 결합형 (multi-word units)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어를 안다는 것은 단어의 의미, 품사, 그 단어의 파생범위, 기타 연합범위를 알고 일정한 언어 제약의 범위까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³⁾

따라서, 단어 학습이라고 하면 단순히 어휘 수를 증대시켜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단어에 대해 지시적 의미뿐만 아니라 형태 및 사용에 대한 지식 등을 확장시켜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go 동사가 goes와 went라는 이형태를 가지고 있고 go

2) COBUILD는 The Collins Birmingham University International Language Database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3) 연어 관계(collocation)란 목표 단어와 함께 나타나는 단어 패턴을 지칭하며 원어민의 표현과 달리 외국어 학습자의 표현이 어색하게 들리는 것은 각 어휘의 연어적 병기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sour milk는 가능하지만 *sour butter는 잘못된 표현이며 *rancid milk라는 표현은 어색하지만 rancid butter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rancid와 sour 같은 표현은 언어 가능한 범위가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rancid lard, rancid oil, rancid dressing이 가능하고, sour cherries, sour apples, sour note, sour disposition이 가능하다. (McCarthy, 1990)

shopping 같은 용례를 배우게 된다. 즉, 아동이 3학년 때 처음 접해서 알게 된 go와 6학년 때 알고 있는 go에 대한 지식은 차이가 있게 되고, 6학년 아동이 발전된 어휘 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Cameron(2001)에 따르면 단어의 의미에는 스키마, 스크립트, 프레임 등으로 불리는 해당 언어 문화권의 정형화된 개념 틀이 연결되어 있다. 'I'll go and fetch the milk' 라고 말할 때 영국인의 milk에 대한 스키마는 문 앞에 배달된 우유를 전제로 하고 있고 그 상황을 기술한 것이다. 만약 어떤 영어 단어가 한국 문화권의 스키마와 전혀 다른 영어권 스키마를 가지고 있다면 그 단어를 일대일로 한국어로 번역했을 경우 해당 영어 단어가 함축한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Singleton (1999)에 따르면, 아동의 개념 체계가 발달하면서 5-10 세의 아동의 경우 통합적 관계(syntagmatic relation)에서 계열적 관계(paradigmatic relation)로의 변화가 관찰된다. 단어 연상 실험을 할 경우, 큐 단어로 dog 또는 table을 주면 5세 정도의 어린 아동은 통합적 관계에 있는 bark 또는 eat이라는 답을 하는 반면, 10세 정도의 나이든 아동은 계열적 관계에 있는 animal 또는 chair라는 답을 하게 된다. 5세 아동의 경우 단어를 연계성이 없는 개별 아이템처럼 다루지만, 인지체계가 좀더 발달되면 분류, 비교 등의 논리적 사고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단어 간의 연계성을 파악하게 되어 동일계열의 단어로 대답을 하게 된다. 상위 개념어와 하위 개념어를 도입하여 단어의 의미 특성을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으며, 단어의 의미와 연상을 통한 재생 기억을 보강할 수 있도록 의미 망을 사용하여 지도할 수 있다.

영어의 어휘는 습득되면 장기 기억에 저장되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Nation(2001)에서는 장기기억에 저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과 사용이 필요하고, 저장된 지식이 신속하게 재생되려면 청크 상태이어야 하므로, unable과 같이 사용빈도가 높은 결합형은 청크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반면, unambiguous와 같이 사용빈도가 낮은 단어는 규칙에 의하여 un+ambiguous+ness로 재창조된다고 설명한다.

III. 아동을 위한 영어 어휘 학습전략

아동은, Locke(1993)가 지적했듯이, 목표 단어에 대한 발음을 습득하는 것보다 오랜 시간 과정을 거쳐서 그 단어의 의미를 습득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단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단계에서도 말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한다. 즉,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단어의 의미와 문법적 특성 등을 완전하게 배워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휘 능력은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생성 발전되며, 어휘는 영어학습에서 기본적인 요소로 의사소통을 구체적으로 진전시켜 갈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사는 초보 학습자인 아동이 의사소통능력을 성취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어휘 수를 확대시키고, 그 어휘가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는지--어떤 연어관계가 있는지--전형적인 용례를 습득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1. 초등영어과정의 기본어휘

현재 초등영어 과정에서는 빈도, 분포범위, 학습용이도, 학습자의 필요 등을 고려하여 초등학생을 위한 기본 어휘로 578개 어휘를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이완기, 2000). 이 어휘 수에는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와 달, 요일, 기수, 서수는 새로운 어휘로 포함되지 않았다. 어휘의 카운트 단위는 동사의 굴절형을 동일 단어로 세는 레마의 개념과 접사 등을 동일 단어로 계산한 단어가족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여 각 학년별로 어휘 수에 대해 제한을 두었지만, 표현 욕구를 고려하여 30 단어의 상용 외래어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3학년 80~120 단어 4학년 80~120 단어로 제약을 두었고 5학년 90~130 단어 6학년 90~130 단어로 제약을 두었으며 전체 기간동안 450 단어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준수하면 매 학년 상한선까지 어휘를 가르쳐도 500 단어로 국한되므로, 영어원어민 아동 5세가 보유한 4,000~5,000개 어휘력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므로 실제 의사소통능력의 성취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휘 수를 얼마나 많이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Meara(1995)는 초급과정에서 수백 단어 정도로 어휘 수를 통제하는 접근법에 반론을 제기한다. 500 단어 정도의 어휘력으로 실생활을 접하게 되면 유용성이 떨어지지만 2,000 단어의 어휘력이면 실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수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초급 학습자들은 어휘를 많이 배

우고 싶어 하므로 이러한 학습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수법이라고 주장한다.

어휘 수에 대한 통제는 학습자의 관심, 학습 부담, 욕구 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목표로 한다면 1,000~2,000 단어까지는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

2. 어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려할 사항

최근 어휘지도의 논쟁은 기존의 의사소통교수법에서 주장하듯이 어휘의 지도방법으로 암시적인 간접 지도방법만을 사용해도 충분한가 아니면 명시적인 직접 지도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볼 때, Decarrico (2001)가 지적하듯이, 적절한 상황을 제공하여 내재적인 어휘 학습이 저절로 일어나도록 하는 암시적 방법과 더불어 계획적으로 명시적인 어휘지도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절충식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Cameron(2001)에서 지적하듯이, 어휘의 종류에 따라 지도 방법을 달리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기능어에 속하는 어휘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므로 다양한 문맥 속에서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암시적 방법에 의해 습득시키는 것이 효과적이고, 내용어에 속하는 어휘는 의미 망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직접 명시적인 방법을 통해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어떤 단원에서 새로운 단어를 목표단어로 제시하여 학습시키려고 한다면 그 전에 그 단어를 적어도 5~6회 정도 접할 기회를 주도록 수업 자료나 수업 운영을 계획적으로 조정해가면 학습자가 학습 부담감을 덜 느끼면서 어휘를 습득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어휘가 도입되었을 때 학습자가 스스로 인지하여 그 의미를 알아내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교사가 칠판에 그 단어를 써서 강조할 수도 있고, 학습자들끼리 또는 학습자와 교사 간에 서로 그 단어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한 의미타협이 발생할 수도 있고, 교사가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영어 동의어로 설명하거나 한국어로 알려줄 수 있다. 의미타협과정을 거친 어휘에 대해서 기억이 오래 가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고, 단어의 의미에 대해 정의를 해줄 때는 짧고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모국어 번역어로 알려 주는 것도 학습자가 빨리 바로 의미 이해를 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새 단어를 도입했을 때 바로 한국어 번역어를

제공하면 아동이 그 영어 단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거나 새 단어를 마음에 담아 볼 기회를 빼앗게 된다는 단점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Nation, 2001)

어휘 학습에서 반복 연습은 기본이다. 학습한 어휘를 기억했다가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반복 학습을 시켜야 한다. 한번에 오랜 시간동안 반복시키는 방법 (massed repetition)보다는 간격을 두고 반복시키는 방법(spaced repetition)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하루에 20분간 반복연습을 시키고 끝나는 방식보다는 오늘 3분간 반복했다면 내일 3분간 이를 후 2분간 한 달 후 2분간 식으로 간격을 두고 반복시키는 방법이 저장 후 재생 효과가 크다.

어휘 기억은 일반적으로 7회 정도 반복하면 암기가 가능하다.(Nation, 2001) 대부분의 경우 첫 번째 학습이후 바로 잊어버리게 되므로, 두 번째 반복은 바로 이어서하고 그 후 간격을 두고 계속 반복하여 사용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습자가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듣거나 읽어서 새로운 단어를 습득하려면 평균 16회 정도 접해야 된다고 한다.(McCarthy, 1990)

Nation(2001)에서는 학습자의 어휘 수가 증가하게 될수록 학습자가 듣거나 읽어야 할 영어 입력량을 늘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100 단어를 알고 있으면, 1,000개의 사용단어가 실린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읽게 해야 하고, 학습자가 500 단어를 알고 있으면, 5,000개의 사용단어가 실린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읽게 해야 한다. 그래야 알고 있는 어휘를 잊지 않고 반복 학습이 되어 어휘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가 자기의 어휘력 수준에 맞추어 사다리 문고(graded readers) 시리즈에서 읽기 자료를 골라 꾸준히 읽는 것도 어휘력 유지 및 확장을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어휘력 확장을 위해서는 정독보다는 다독이 권장된다.

McCarthy(1990)는 새로운 단어를 제시하는 수로는 듣기와 읽기 위주의 이해 활동 중심이 아니고 실제로 말하기와 쓰기와 같은 표현활동을 통한 학습이 발생하도록 하려면 60분 수업에 8~12개 정도(초급 8개 고급 12개)가 적절하다고 했다.

Nation(2001)은 의사소통 교수법에서 강조하듯이 문맥을 통해서 단어의 의미를 추정하는 것이 실제로 쉽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학습자가 텍스트와 95% 정도 친숙해야 문맥에서의 추측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때 95%의 친숙성이 의미하는 것은 20개 사용 단어가 나올 때 새로운 단어가 1개 정도 출현하는 비율로, 90%라 함은 10개 사용 단어 중 모르는 단어가 1개 정도일 경우, 80%는 5개 사용단어 중 1개일 경우를 뜻한다. 학습자가 읽을 이야기책을 선정해 줄 때 참고할 내용이다.

3. 교실수업에서의 어휘 지도방법

어휘 습득을 위해서는 목표 어휘가 사용되는 맥락에 대한 다양한 노출이 필수적이고 충분한 양이 확보되어야 한다. 어휘는 저장된 후 필요할 경우 바로 재생이 되어야 하므로 간격을 둔 반복 학습을 시켜야 학습효과가 커진다.

반복 연습이 필요한 경우 게임을 도입하면 재미를 느껴서 학습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교사가 복습하라는 주문을 하지 않아도 게임과정에서 학생들이 전 시간에 학습한 어휘를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게임 수업을 구성한다.

아동들에게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학습시키는 방법으로는 Nation(1990)에 제시된 것처럼 시각적인 설명 방법으로 하거나 언어적인 설명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우선, 그림이나 시현을 통한 보여주기 방법으로

- (1) 실제 대상을 보여준다.
- (2) 오려낸 그림을 사용한다.
- (3) 몸짓을 사용한다.
- (4) 행동으로 보여준다.
- (5) 사진을 활용한다.
- (6) 칠판에 그림이나 도표 등을 그린다.
- (7) 책에 실린 그림을 보여준다.

언어를 통한 설명하기 방법으로는

- (8) 교사가 말로 분석적인 정의를 내려준다.
- (9) 새로운 단어를 사용해 그 단어의 정의가 담길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 들려준다. (예. An ambulance takes sick people to hospital.)
- (10) 한국어로 번역해준다.

등이 있는데 새 단어가 등장했을 때 바로 한국어 번역어를 제공하면 아동이 그 영어 단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거나 새 단어를 음미해 볼 기회를 빼앗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문맥에서 그 단어의 의미를 추측하기가 쉽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한국어 번역어를 교사가 말해주는 대신 아동이 그 단어의 의미를 한국어 번역어로 말해보게 유도한다.

또한, 새로운 어휘를 제시할 때 항상 문맥에서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그 단어의

의미와 연어 관계 등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쉽게 할 수 있는 어휘 학습활동으로는 어휘 연상 게임, 텍스트 상에서 특정단어를 부각시키기, 어휘 게임하기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컴퓨터 학습자료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문자뿐만 아니라 음성언어 연습 자료도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

외국어의 어휘 학습인 경우 발음하기가 쉬울수록 학습의 용이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Nation, 2001) 단어를 발음에 따라 분류하고 발음과 같은 철자를 찾아내는 연습 등과 같은 음운인식 훈련도 어휘 기억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단어 카드를 준비해서 각운이 같은 단어 찾기 또는 두운이 같은 단어 찾기 등을 하게 하면 단어에 대한 기억 강화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카드 앞면에는 bat, mat, hat, cat, rat, line, nine, pine, cake, lake, rake 등 영어단어가 적혀 있고 뒷면에는 단어의 의미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카드를 준비한다. 그러면 교사의 의도에 따라 앞면이나 뒷면을 이용할 수 있다. 글자와 발음과의 관계에 집중시키고 싶으면 단어카드를 보면서 찾게 하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발음을 기억하게 하고 싶으면 그림 카드를 보면서 각운이 같은 단어와 두운이 같은 단어를 찾게 하면 된다.

Phillips (1993: p.75-76)가 제안한 '플래시카드 아이디어(Flashcard ideas)'는 6~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10분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아동이 단어와 그 의미에 대한 이미지를 연결시키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사는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작업을 해둔다: 아동에게 잡지책을 가져오라고 해서 아동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들을 오려둔다; 각 그림에 적용되는 단어를 정한 뒤 주제별 또는 명사별, 형용사별, 동사별, 상황별, 언어 기능별 등등으로 분류를 한다. 그 그림들의 뒷면에 판지를 붙이거나 코팅을 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수업 활동용 카드를 만들어둔다. 수업 활동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1) 아동들에게 이 그림카드와 함께 영어 단어카드를 보여준다. 그 영어단어를 분명하게 발음하여 들려주고 학생들이 다같이 따라 말하게 한다. 그리고 다음 카드로 넘어간다.
- (2) 10장 정도의 카드를 다 보여준 후 (카드의 수는 아동의 나이나 단어의 난이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첫째 카드를 보여준다.
- (3) 이번에는 그 단어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본다. 대개는 그 단어를 말할 수 있는 아동이 있으므로 그 아동이 발음할 수 있도록 도와 말하게 한 후 다른 아동들이 그 아동을 따라 말하게 한다. 그런 방법으로 나머지 카드들

도 발음하게 한다.

이 방법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사의 발음을 귀 기울여 들도록 하고, 단어의 발음과 의미를 연결시키기 위해 집중하는 능동적 학습자가 되게 한다.

단어 연상 활동은 단어가족에 속하는 어휘를 가르칠 때 활용하면 단어의 연계성을 파악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아동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어진 단어와 짹이 되는 단어를 적도록 하거나

Make a word-match list:

run -- runner	act -- actor	sing -- singer
swim -- swimmer	farm -- farmer	dance - danc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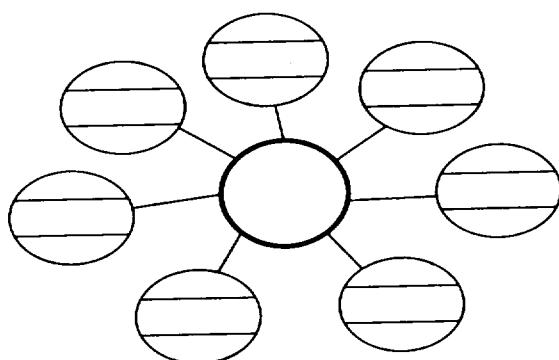
또는 한 경우만 예로 제시하고 짹 활동 또는 조별활동 등을 통해서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진 5쌍의 단어 짹을 적어보도록 할 수도 있다.

Make a word-match list as this: run - runner

단어 연상 활동으로 마인드맵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table하고 연상되는 단어를 물으면 chair가 가장 많고 boy 하면 girl이 제일 먼저 연상되는 단어라고 답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단어들이 우리 인지체계 안에 의미망을 형성한 집합 형태로 체계화되어 있다고 가정하게 한다.

Phillips(1993: p.76-77)가 제시한 ‘어휘 네트워크(Vocabulary networks)’는 마인드 맵의 원리를 이용해서 주제와 연결되는 단어들을 학습하게 하는 활동으로 8~12세 아동이 대상이다.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그물 망 도표 그림을 나누어준다.



(2) 가운데 위치한 굵은 선 원 안에 영어로 주제어를 하나 적게 한다. 그리고 바깥 쪽에 있는 원 안의 아래쪽 칸에 한국어로 그 주제어와 연관이 되는 단어를 적

게 한다.

- (3) 조별활동으로 운영하든 개인이 반 전체를 돌아다니든 친구들에게 질문을 해서 든 서로 상호활동을 통해 그 한국어 단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알아내 맨 위 칸에 적어보게 한다. 친구들이 다 모르면 사전을 찾게 한다. 그렇게 해도 해당 영어 단어를 못 찾으면 교사에게 질문하게 한다.
- (4) 마지막으로 각 원 안 가운데칸에 그 단어의 그림을 그려보게 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연관된 단어들을 학습하기가 좋다. 다만, 한국어 단어와 영어 단어의 의미가 부합되는지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새로운 어휘가 도입되었을 때 그 의미를 명확하게 가르쳐서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하는 학습방법을 찾고 있었다면 다음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교사가 목표 어휘를 이용하여 텍스트를 준비해 두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영어 읽기 훈련이 덜 된 아동들에게도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4학년 이상 아동들에게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단어의 의미를 추측해내기(Guess the words)' 라고 불리는 이 활동은 8~12 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새로운 단어를 제시하거나 문맥에서 단어의 의미를 추측해내는 연습을 목표로 한다 (Phillips, 1993: p.77-78). 사전 준비작업으로 교사는 자기 반 아동에게 적절한 이야기를 골라두거나 작성해 본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삽화를 함께 준비한다. 그림들과 더불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문맥의 도움을 받아 아동들이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선정해 둔다. 한국어 이야기에 선정한 영어 단어를 섞어서 기록한 텍스트를 준비해 복사해 둔다. 다음과 같이 수업을 진행한다.

- (1) 칠판에 이야기의 제목을 적은 후 아동에게 그림을 보게 한다. 무슨 이야기인지 추측해 보게 한 후 그 이야기에 나올 만한 단어들을 영어나 한국어로 말해보게 한다.
- (2) 아동에게 이 이야기는 한국어로 쓰였지만, 그 한국어로 작성된 이야기 속에 영어 단어가 섞여 있다고 말하고 그 텍스트를 나누어 주면서 그 영어 단어들을 읽고 의미를 말할 수 있는지 물어 본다.
- (3) 학생들은 다시 텍스트를 읽어 보면서 짹활동을 통해 영어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추측하게 한다. 이 작업을 좀더 쉽게 만들어 주고 싶다면 한국어 보기지를 제시하고 그 중에서 고르게 한다.

텍스트 예: 찰리 브라운과 스누피는 서로 friends여서 마음이 잘 통했습니다. 오늘도 찰리는 스누피와 함께 baseball을 한 후 his hands를 씻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 활동에서는 해당 영어 단어의 연어 관계가 제시되지 않는 단점이 있지만, 영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 아동에게 문맥을 활용해서 영어 단어의 의미를 추측해내는 연습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학습자들이 성공적인 영어 학습자가 되게 하려면 어휘 학습이 대단히 중요하며 유용한 어휘를 모두 수업시간에 가르쳐 줄 수가 없으므로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Hatch and Brown(1995)가 제시한 어휘 학습에 대한 5 가지 기본 단계를 학습자들이 학습전략으로 삼을 수 있도록 유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 새로운 단어를 접할 수 있는 출처나 자료가 있다.
- (2) 새로운 단어의 형태에 대해 시각적이거나 청각적이거나 또는 시각 청각적인 분명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 (3) 단어의 의미를 배운다.
- (4) 단어의 형태와 의미 사이에 기억을 강화시키는 유대관계를 만들어 둔다.
- (5) 학습한 단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모든 학습자에게 적합한 전략은 없다. 개인 성격에 따라 전략도 달라질 수 있어서 자기에게 효과가 있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IV. 맷 음 말

어휘는 언어학습에서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휘능력이 없으면 의미 전달을 할 수가 없으므로 의사소통 능력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영어 학습에서도 어휘 학습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어휘 학습은 일회적 노력에 의하여 달성될 수 없으며 점진적으로 발달시켜 가야 하는 능력이다. 어휘에 담긴 정보도 형태, 의미, 사용의 3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어휘가 출현하는 문맥이 의미 결정에서 중요하므로 어휘를 제시할 때 문맥이 동반되는 스토리텔링같은 지도방법을 권장한다. 새로 배운 단어들은 반복 학습이 중요하며, 필요할 때 그 단어들을 즉시 재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반복해서 사용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듣기와 읽기라는 이해 활동에 머물지 말고 말하기와 쓰기 같은 표현

활동을 통해 어휘기억을 강화시켜야 한다.

어휘 지도방법으로는 Cameron(2001)이 지적하듯이 기능어에 속하는 어휘는 다양한 문맥 속에서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암시적으로 습득시키고, 내용어에 속하는 어휘는 문화적 차이가 동반되는 스키마와 연결되기도 하고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명시적인 체계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참고 문헌〉

- 이완기. (2000) 초등영어교육론. 서울: 문진미디어.
- Cameron, Lynne. (2001) *Teaching Languages to Young Learn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elce-Murcia. 3rd ed. (2001)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Boston: Heinle & Heinle.
- Coady, James & Huckin, Thomas, eds. (1997) *Second Language Vocabulary Acqui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carrico, Jeanette S. (2001) Vocabulary learning and teaching. In Celce-Murcia, 3rd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Boston: Heinle & Heinle.
- Hatch, E. and Brown, C. (1995) *Vocabulary, Semantics, and Language Educ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cke, J. (1993) *The Child's Path to Spoken Langua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cCarthy, Michael. (1990) *Vocabul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ation, I. S. P. (1990) *Teaching and Learning Vocabulary*. Massachusetts: Newbury House.

- Nation, I. S. P. (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hillips, Sarah. (1993) *Young Learne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ingleton, D. (1999) *Exploring the Second Language Mental Lexic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st, M. (1953) *A General Service List of English Words*. London: Longman, Green & Co.
- Widdowson, H. G. (1978) *Teaching Language as Communi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